

추 도 사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 중흥조 상월원각조사 추모 39주기 다례제에 참석하신 모든 천태종 종도님들께 추모의 인사들 드립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도 어느덧 중반으로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함을 세월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스님께서는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이곳 소백산 구인사에서, 불교중흥과 민생구제라는 큰 원력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스님의 원력은 우리민족에 맞는 문화와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활불교, 애국불교 그리고 대중불교”로 나타나 천태종의 종지로서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곳 구인사는 이제 많은 신도님들이 찾으시는 명찰이 되었고, 천태종도에게는 특별한 성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홀로 시작하신 이곳에서 불자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지역과 사회에 밝은 기운으로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 함께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의 숭고한 가르침에서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는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웁니다. 나만이 행복하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정신의 빈곤을 채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인간만이 존귀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울의 생물과 산하의 이름 모를 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과 만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종교입니다.

오늘 상월원각조사의 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천태종 사부대중 모두가 스님께서 생전에 주신 가르침을 통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베풀면서 우리사회가 물질만으로 풍족한 사회가 아닌 정신과 마음으로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

도록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상월원각조사의 39주기를 맞아 신도님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천태종단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7(2013)년 06월 0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